

MS클라우드 장애 관련 항공사 발권 시스템 대부분 복구, 공항은 정상 운영 중입니다

□ 19일 오후 美 MS社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에 따라 해당 서비스 기반의 항공권 발권 시스템(GoNow 시스템, Navitaire 社)을 사용하는 일부 항공사들에서 발권지연 등이 발생(19일 15시30분경)했으나, 현재 모든 공항 시스템은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.

○ 장애로 인한 해당 항공사들의 수기 발권 등으로 일부 항공편의 지연, 결항*이 있었으나, 김포공항(23시→익일1시), 김해공항(23시→익일00시)의 커few타임** 연장 등 조치결과 체객 발생 등 없이 운항 중에 있습니다.

* 20일 04시 기준 (인천공항) 지연 37편(국적사 31편, 외항사 6편), 결항 4편(외항사 4편)
(김포, 제주공항 등) 지연 64편(국적사 61편, 외항사 3편)

** Curfew time: 공항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야간운항 금지 (23시 ~ 익일 6시까지 적용)

○ 현재(20일 07시) 관련 국적사(제주항공, 이스타항공, 에어프레미아)의 시스템은 전부 복구되었으나, 외항사(타이거에어, 세부퍼시픽 등)의 경우 운항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복구 중으로,

○ 일부 항공편에서는 아직 항공기 연결로 인한 지연 등이 예상됨에 따라, 정부와 양 공항공사는 완전한 정상화까지 공항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,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면밀히 살피겠습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국토교통부	책임자	과 장	김영혜 (044-201-4219)
	항공정책관 항공산업과	담당자	사무관	이종선 (044-201-4231)
<공동>	한국공항공사 서비스개발부	책임자	부장	노병관 (02-2660-2838)
	인천국제공항공사 통합운영센터	책임자	센터장	우성태 (032-741-2960)